

파손된 도로, 모바일로 신고하니 신속 해결

광주시, 네이버 밴드 '빛고을 길 지킴이'로 민원 접수

사진·위치 해당 담당자에 실시간 통보 원스톱 처리

광주시의 시민참여형 모바일 도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모바일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Band)'에 개설한 '빛고을 길 지킴이'를 통해 50건의 도로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빛고을 길 지킴이' 밴드는 개설 보름여 만에 ▲노면파손 22건 ▲안전시설 7건 ▲

표지불량 4건 ▲기타 17건 등 일 평균 5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됐다.

밴드는 모니터링원들의 도로 민원 접수와 동시에 해당 부서의 민원 처리가 시작되고, 처리 결과까지 직접 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장 사진과 정확한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에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밴드 관리자의 풍부한 경험이

접목되면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

여기에 밴드 관리자가 접수된 사진과 현장 정보를 시·구청 담당자에게 실시간 통보하면서 민원 접수 과정과 담당자, 현장을 찾아다니는데 소요됐던 시간까지 줄여 들면서 민원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빛고을 길 지킴이' 개설 당시 30명에 불과했던 모니터링도 발 빠른 민원처리에 대한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늘어 18일 현재는 자치구 담당자를 포함해 34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모니터링원으로 활동 중인 유정훈(35·남구 사직동)씨는 "우연히 도로변 안전

난간(가드레일)이 교통사고로 훼손된 것을 보고 밴드를 통해 알렸더니 깨끗하게 정비가 이뤄졌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현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시설 관리담당은 "민원처리가 복잡해 1회성 제보에 그쳤던 도로 민원이 실시간 접수와 처리과정 공유라는 모바일 환경과 접목돼 안전예방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흥미를 갖고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니터링원들 늘어나 만큼 다른 영역으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라면에 사랑을 담아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지난 19일 노동조합과 함께 광주 동구 지원동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연탄 3000장과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

도시공사 제공

먹다 남긴 밥 누룽지 재활용한 유명 맛집 등 무더기 적발

광주시 특별사법경찰단

무등록·유통기한 초과 등 10곳

광주시에 20일 "불량 음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무등록 식품제조업체와 유명 맛집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업소는 무등록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3곳, 유명

맛집, 모범업소 등 음식점 10곳이다.

광주시에 다른 지역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위해식품이 유통돼 유명 맛집과 모범음식점 등에서 음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4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히 적발된 유명 맛집과 모범업소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업소로 2015하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발된 맛집과 모범음식점은 한정식과 일식업소 등이며 손님이 먹다 남긴 밥을 누룽지로 재활용하거나 무등록 제조업체 등에서 저가로 공급받은 음식재료나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 사용, 원산지를 거짓 표기 등 유통세를 벌려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무등록 업체인 영광군 소재 한 생선 판매업소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음식점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한 음식점

은 외국에서 신고 절차 없이 직접 반입한 음식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광주시에 위반업체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제실버박람회 내일까지 DJ센터

9개국 137개 기업 제품 전시

한방·치과 진료·건강 상담

세계 실버산업의 현수소를 볼 수 있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2014국제실버박람회가 20일 개막, 2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9개국 137개 기업·기관·단체가 참가해 실버·헬스케어제품을 전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는 노인 안전존, 헬스케어존, 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노인안전 분야에서는 노인요양 안전 관리를 위한 의무 설비와 시설 ▲헬스케어 분야는 관련 제품과 건강관리 서비스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는 의용생

체공학, 보조공학, 재활공학, U-헬스케어 등을 선보인다. 특히 미국, 몽골, 홍콩,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에서 9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기로 해 지난해 2개국 9명에 비해 10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방문함에 따라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은 물론, 상품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대행사로오는 서울대학교 주최 Biomedical Engineering 2014, 전남대노인과학센터의 국제노화심포지엄 등 15개 세미나, 심포지엄, 관련 기관·단체 교육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한방진료, 실버치과, 건강상담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정위원회 참여희망 시민 POOL 모집

각종 위원회 위촉 때 추천

홈페이지서 경력·자격 기재

광주시에 20일 "다수의 시민이 정책자문과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POOL'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정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POOL'을 마련, 각 분야 전문 인적자원을 확보해 위원회 위촉 위원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인적자원 확보 어려움에 따른 일부 위촉위원의 장기연임, 위원회 중복 참여 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정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POOL'에 신청한 시민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자격 기준에 따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 시 추천되며,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위촉직 위원의

로 선정되면 관련 분야의 심의,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에는 광주 시정에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POOL' 배너에서 주요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을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정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POOL 모집과 함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해 위원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면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민선 6기 시정 철학을 담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시정 위원회 112개를 운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산구 도로명주소 구축 우수기관 선정

전화 스티커 부착·안내소 운영

광주시에 20일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4년 도로명주소 지자체 추진 평가에서 광산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연차율을 위한 노력과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등 위치찾기 선진화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기관 16곳과 개인이 선정됐다.

광산구는 독거노인 가구에 도로명주소 전화기 스티커 부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와 MOU를 체결해 도로명주소 안내소 운영,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행사 등 홍보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홍보하고, 안내 시설물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